‘한몸 천국, 분열 지옥’

주 필

한 달 남짓 진행된 민주당 경선이 모두 끝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다. ‘어대명’. ‘어차피 대세는 이재명’이었다. 이낙연 후보가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결선투표는 물 건너갔다. ‘국무총리 출신 필패론’도 어김이 없었다.

결정적인 것은 호남의 민심이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호남 경선은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호남은 두 후보에게 어슷비슷한 지지를 보냈지만 ‘어대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것은 이후 진행된 다른 지역 경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왕 이길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재명은 아슬아슬한 턱걸이 과반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경선 막바지에 이해하기 힘든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3차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62.37%)이 이재명(28.3%)에게 압승을 거둔 것이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까지 일반 여론이 바뀔 수 있을까? 미스터리(mystery)였다. 하지만 어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이재명의 ‘토건 투기 세력 척결’ 발언에 전국의 부동산업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막판 위기를 느낀 이낙연 캠프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그럴듯하다. 그렇지만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 투표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부동산업자들이 반발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재명 캠프라고 해서 선거인단 모집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턱걸이 본선 직행 이재명 후보

그러니 아무래도 대장동 리스크 등에 따른 ‘불안한 후보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여기에 약자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심리 현상인 언더독(underdog)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찌 됐든 호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된 민심은 이재명에게 비교적 관대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녹음파일까지 공개된 ‘형수 욕설 사건’만 해도 그렇다. 그걸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말한다. 얼마나 심한 쌍욕이었던지 차마 입에 옮기기도 거북할 정도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욕설’보다는 그토록 험한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더 주목했던 것 같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욕을 했겠느냐는 거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변명하지 않았다. ‘쿨하게’ 사과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에 비하면 ‘어떤 여배우와의 스캔들’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지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물론 이 지사는 경선 토론에서 가수 나훈아 흉내(“바지를 벗을까요?”)를 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런대로 잘 넘어갔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의 경우 ‘배꼽 아래로는 묻지 말라’는 보편적(?) 인식이 작용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그들이 한때 연인 관계였음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를 나온 뒤 곧바로 공장에 취업해야 했던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공격에 맞서 이렇게 맞받아친 적이 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재명의 말은 언제나 시원시원했다. 그의 별명 중 하나가 ‘사이다’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한번 결정하면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코 머뭇거림이 없었다.

이 같은 장점이 아마도 그의 모든 ‘흠’을 덮고도 남았을 것이다. “흠결 있는 후보가 대선에 나섰을 때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상대 후보들이 아무리 외쳐 봐도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차분하고 신중하고 밋밋한 이낙연보다는 적극적이고 저돌적이며 톡 쏘는 이재명을 선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20여 년 전 광고카피에서 비롯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올해는 같은 뜻으로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火天大有)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天火同人) 투자자들이 1000배가 넘는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사실을 비꼰 것이다. 3억5000만 원으로 4000억 원을 만들었으니, 지금 헤리포터의 스승이 온다 해도 이런 마법을 부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대장동 의혹’ 큰 산 넘어서야

이낙연은 이러한 대장동 의혹을 반전의 계기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결선투표로 가 보고 싶었을 것이다. 결선투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두 명을 놓고 다시 투표하는 제도다. 1971년 신민당 대선 경선 결선투표에서 김영삼에게 뒤지던 김대중이 결선투표에서 이를 뒤집은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당헌 당규를 달리 해석할 경우, 이재명의 득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낙연 측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잠시 반발했지만 결국 승복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되는 본선 무대에서 ‘어대명’(어차피 대세는 이재명)은 또 다른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그는 과연 ‘대장동 의혹’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원팀 천국, 분열 지옥’이라고들 하는데 과연 그는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 또다시 승리를 일궈 낼 수 있을까.

한편,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호남 사람들은 아직도 마땅히 마음을 줄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전 세계 1억1100만 가구가 시청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은 믿을 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어서 믿는 거지.” 이 말을 대선에 적용해 본다. “(호남인들은 누군가를 지지하더라도) 믿을 만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기댈 데가 없어서 지지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답게’, 그저 그런 것 말고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수 우파는 호남을 이민족으로 보고 진보 좌파는 호남을 노예로 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알아야 할 것은 언제까지나 호남을 ‘집토끼’로만 생각한다면 뜻하지 않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안 임자도에 국내 유일 해양형 치유 숲 조성

전남도, 녹색자금공모사업 선정
2025년까지 4년간 70억 투입
건강증진센터·명상원 등 조성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일원에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해양형 치유숲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13일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서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따라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신규 발굴해 공모를 추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에 이어 발표평가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신안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일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모래 해변과 해송숲길이 있는 곳이다. 숲과 바다에서 동시에 품어져 나오는 음이온, 피톤치드, 해수가 매우 풍부하다. 인근에 위치한 육타리도 섬까지 다리 연결 계획이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녹색자금 42억원, 군비 28억원 등 모두 70억원을 들여 건강증진센터, 치유숲길, 해수치료원, 명상원 등 시설물을 조성한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치유의 숲은 대체로 산속에 위치하나 임자도는 바다에 맞닿아 있는 매우 특색있는 산림”이라며 “산과 바다가 만나 융복합한 국내 유일의 해양형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이번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포함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5개소,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2개소 등 총 8개소에 국비 6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대,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 장학금

전남도립대가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립대는 2018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거나 전남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내년도부터 지역 제한을 없앤다.

13일 전남도립대에 따르면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 지역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생활관(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입사가 가능하며 무료 통학버스 운행 등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남도립대는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선정을 통해 교내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맞춤형 산업체 현장견학’, ‘취·창업 캠프’, ‘미니 채용박람회’, 학생과 지도교수가 함께 하는 ‘기업체 동행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없이 대학에 들어와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으며,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정주형 인재 양성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립대는 오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광복군 자취 담긴 유물 5건 문화재 등록

광복군 관련 자취가 담긴 유물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축하문’,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光復)’, ‘한국광복군 훈련교재 정훈대강’, ‘김좌진 장군 사회장 약력서’ 등을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는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축하문’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의 가릉빈관에서 임시정부 주석이자 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인 김구 주관 하에 거행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관련 유물이다. 또한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光復)’은 항일 독립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한 기관지다.

‘한국광복군 훈련교재 정훈대강’은 1945년 5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서 발행한 훈련교재로 일반강령, 기본정책 등 광복군의 ‘강철 같은 정신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군을 이끌며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사회장(1930년 3월)에서 낭독된 약력서인 ‘김좌진 장군 사회장 약력서’는 김좌진 출생과 성장, 사망, 주요 활동과 사상,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순천 동남사 사진기 및 확대기’는 순천에서 설립된 동남사(1952~1976)가 제작·판매한 사진기(4종)와 확대기(2종) 등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사진기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남사는 국내 기술로 사진기 국산화를 시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경기도 파주에 3억5천만원 투자
하실 분, 2분 모십니다
대지 2007㎡(607평), 시세 24억
2~3년 후 시세 36억 확신
아파트/빌라 신축 예정 부지
문의. 010-3605-5000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상가건물, 다가구, 전원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건물
광주. 북구. 오치 4층 대384㎡(116평) 건물 연998㎡(302평)
아파트 집단사거리코너 먹자골목 주도로 단층6개 점포 상권 최상 보1억8천만원
월6백4십만원 매입 후 월세 상향 조정가 매16억5천만원

2 다가구 및 주택용지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유럽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포장 배수시설 됨.
남향 경관수려 교통요지 시장인접 토지4,220㎡(1,276평) 매㎡ 6십 5만원

3 전원주택내, 10여채 단지조성용의, 선산묘터 가능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 산자락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외벽. 적벽돌. 2층연 129㎡(39평) 소형 승강기 설치
• 토지 8.098㎡(2,452평) 40여년생 소나무 명품 외 8종 정원수 및 과수 380주 포함
• 전원주택 단지 선호지 10체 조성 가능
• 본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묘지 조성가 경관 수려한 숲 속 매 7억

4 전원주택용 토지와 식재된 정원수 20년생 8종 2천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년생 외 7종 2천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 단지 조성. 물치장. 펜션 다목적 사용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 8만원

5 임야. 휴양림 30년생 편백 1만주 마을 변방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 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3,000평) 구내 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 귀촌자 휴양자
최상 ㎡ 6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남원주택(이하 “갑”)와 주식회사 세컨하우스(이하 “을”)는 2021년 10월 13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본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갑” : **주식회사 남원주택**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199, 지하02호 (도통동)
대표이사 문삼열

“을” : **주식회사 세컨하우스**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62, 302 (농성동, 케이티엔지 전남본부)
대표이사 문삼열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2차)

당 회사는 2021년 10월 0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1년 10월 05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주식회사 컨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12, 4층 비81 (신사동, 다복빌딩)
청산인 김 기 현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방 김연호(380321-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곡성군 오곡면 봉조길 365-14 (봉조리)

피상속인 방 김연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느단3684호로 신청하여 2021년 10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0월 14일

• 상속인 : 1. 이아무(351210-XXXXXXX)
전남 곡성군 오곡면 봉조길 365-14 (봉조리)
2. 김점순(660403-XXXXXXX)
울산 북구 중산로 45, 302동 1403호 (중산동, U-스타시티임동미라주더스타3단지)
3. 김영종(581115-XXXXXXX)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20 (옥천동)
4. 김영기(600207-XXXXXXX)
서울 관악구 난곡로30길 7-11 (신림동)
5. 김영현(661110-XXXXXXX)
전남 곡성군 오곡면 봉조길 365-14 (봉조리)
6. 김삼순(700206-XXXXXXX)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80, 712동 1801호 (도내동, 고양원흥동일스위트)
7. 김은우(710201-XXXXXXX)
광명시 일직로 28, 731호 (일직동, 광명트리플타워오피스텔)
• 신고기간 : 2021. 10. 14. ~ 2021. 12. 23.
• 채권신고장소 : 광주 동구 준법로 25번길10 5층 법률사무소 한우리 062-222-6544

산행안내

10월24일(일)
▲광주kj산악회 10월24일(일) 오대산 노인봉&소금강계곡 선재길, 상원사, 월정사 트레킹 산행, 염주체육관 04:30, 동아병원 04:35, 롯데백화점 04:40, 광주역 04:45, 문예후문 04:55, 비엔주차장 05: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녹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